



제주시 야경과 불 켜 고기잡이 어선 20일 저녁 제주시 아라동에서 바라본 제주시가지와 앞바다가 도심 불빛과 조업에 나선 어선들의 집어등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교육청 임용시험 오류 또 있었다

2011~2015학년도 초·중등 임용 관련 자체 감사 음악 실기점수 잘못 입력 순위 바뀐 사실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등 임용시험 때문에 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어 자체 감사에서도 임용시험 오류가 드러난 것이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도교육청은 '2011~2015학년도 초·중등 임용 후보자 및 교육전문직 선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올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두 차례나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석문

교육감이 "최근 10년간 치러진 임용시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2016~2020학년도 감사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맡았는데, 지난 16일 결과가 발표(본보 17일자 1면)됐다.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1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음악실기 평가' 당시 응시자 A씨에게 4.5점이 평가됐지만, 점수 입력 과정에서 0.1점 높은 4.6점이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총점

270.33점, 전체 43위로 합격처리 됐지만, 점수를 재집계(270.30점)하면 43위가 아닌 44위가 된다. 이 오류로 합격자 변동은 없었지만, 만약 '당락'을 좌우하는 순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합격자가 뒤바뀌어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용시험 평가위원이 오류를 낸 경우도 허다했다.

2014년 음악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악실기'에서 평가위원 B씨가 2점을 기재해야 하는 '보통' 항목에 2.5점을 기입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평가 기준은 ▷우수 2.5점 ▷보통 2점 ▷미흡 1.5점을 기입해야 하는

데, B씨는 우수에 기입해야 할 점수를 보통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에 의한 오류는 ▷201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수업실연 평가 ▷2012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미술실기 평가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 수업실연 평가 등에서도 발생했으며, 다행히 합격자가 반복된 경우는 없었다.

같은 기간 이뤄진 '교육전문직 선발'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임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용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4일부터 사흘간 또 비온다

기상청 "최고기온 26~28℃"

오는 24일부터 다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1일 중기예보를 통해 24일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22~23℃ 사이 낮 최고기온은 26~28℃ 사이로 예상됐다.

또 기상청은 오는 2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다며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2일 제주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이겠으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0℃, 낮 최고기온은 27~28℃로 평년보다 2~3℃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민기자

도, 팽생이모자반 수거 총력전 해체

일일수거량 5t 내외 유입량도 거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팽생이모자반 수거 총력전을 해체한다.

제주도는 22일부터 팽생이모자반 수거체제를 평시 수거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팽생이모자반 일일수거량이 5t 내외로 급격히 줄고 있고, 유입량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간 항공예찰과 해상관측 결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팽생이모자반이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다. 또 수온 상승으로 유입 가능성이 낮아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활용해 평소대로 팽생이모자반 수거를 병행해 해안변을 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 등 타 지역에서 파견돼 해상수거를 지원했던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정화선박 3척은 22일 복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다만 팽생이모자반이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예찰을 기존 도내에 배치된 정화선박 3척을 이용해 당분간 실시하고, 국립수산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연인원 3900여명과 장비 260대를 투입해 팽생이 모자반 5186t을 수거했다. 이중 50농가에 5060여t을 무상 제공했으며, 120여t은 비료제조업체에 공급했다.

도는 팽생이모자반을 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는 등 신속한 처리 기반을 마련해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23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노래방 출입 QR코드 7월부터 본격 시행

제주시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이나 영업장 폐쇄 조치"

속보=이달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 출입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에선 업주나 손님 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 17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7월 1일부터는 미이행시 벌금이나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7월부터 QR코드를 찍어야 노래방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방문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

일 밝혔다. 노래방 내 QR코드 비치는 이달 10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처벌이 유예되면서 도내 노래방에서의 전자출입명부 이용률은 현재까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할 때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관리자용 앱을 활용해 QR코드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노

래연습장에서 QR코드 비치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역수칙 미준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하는 집단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나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반려동물과 공원 이용엔 에티켓 반드시 지켜주세요"

제주시는 도시공원 20여곳에 펫 에티켓 안내판을 설치한데 이어 추가 설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미착용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미숙기자

학교 밖 청소년 96명 검정고시 전원 합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96명이 지난 달 23일 치러진 '2020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정고시가 두 차례 연기되고 수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터넷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가정 방문을 통해 간식과 도시락, 방역물품을 전달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설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 = **104,140원**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옆집 한달 전기요금 = **17,690원**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